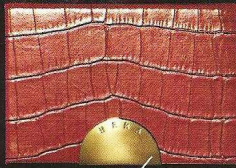


what's up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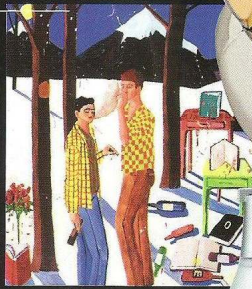


Hera with Jinny Kim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스포츠 브랜드 제니 김이 해리와 리미티드 콜라보를 선보였다. 할로로스 아이세도, 블러셔의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0년대 빈티지 클럽에서 영감을 얻은 엘리자베터 가족의 케이스는 종류에 따라 각각 무사아, 브라운, 그레이 컬러로 구성되어 있다.

Day to day

현지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라이언 슈나이더(Ryan Schneider), 에밀리 노엘 램버트(Emily Noelle Lambert)의 2인1조 아이 엠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각자가 기억하고 경험한 시간과 공간을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두 작가의 일상을 독특한 시각으로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www.imartgallery.com



Glory

프레드는 브랜드의 예술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엔 함께 작업한 디자이너는 프랑스의 가구 디자이너이자 무대 디자이너인 크리스티앙 디옹이다. 그의 건축적이고 과감한 디자인은 프레드의 전통적인 수공예 방식과 결합하여 유연한 곡선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Agua de Loewe

스페인 브랜드 로에베에서 180년 전통의 원천 회사인 'Solon de Cabras'와 함께 리미티드 워터인 '아쿠아 드 로에베'를 출시한다. 1000개의 향정수량으로 판매되는 이 제품은 소량 가져볼만 아니라 물의 귀중함을 알리는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의미로 제작되었다.



10.55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등으로 구성된 5명의 아티스트가 55DSL을 위해 디자인한 동성적인 그래픽의 티셔츠 '10.55' 3가지의 개성을 담은 티셔츠들은 유선 1065장만 제작된다. 라벨에는 아티스트의 이름과 함께 고유한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8월 말부터 전 세계 55DSL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Zoom & victory

올림픽 바람이 지나가고 남은 것은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다. 나이키에서 선보인 '줄 빅토리' 시리즈는 선수를 스피드므로 무게가 겨우 96g밖에 안 되는 고성능 러닝화다. '플라이 와이어'라 불리는 20미크론도 채 안 되는 미세한 실로 만든 신발은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 선수용이 부담스럽다면 같은 기술로 만든 일반인용을 사용해도 무리는 없다. 그래 봐야 184g뿐이냐... www.nike.co.kr



Rebirth refill pen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만년필 제조 회사 중 하나인 카렐리에서 1930년대에 선보인 스포트 시리즈를 현대적으로 재탄생시켰다. 스포트 시리즈는 만년필 뚜껑을 단순히 닫는 역할만이 아닌, 몸체로 활용하여 휴대하기 적합한 크기로 만든, 그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획기적인 디자인이다. 포켓 만년필의 원조를 2만 9천원의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6-1520



Gracias! O de oliva!

지중해에 가까운 스페인의 무르시아 지방에서 재배한 올리브로 만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최상급이다. 올리브 오일은 천연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하며,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노화 방지와 미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의 올리브 제품 라인을 선보이는 '오 데 올리바'는 서울 지역 주요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

